후-9-서미현

인간과기억아카이브

(2015)년 5월 12일 일기

일기 작성양식

이름: 서미현		이메일:	
나이: 17	직업: 학생	거주지역: 경기도	안양
본 행사 참여경험(우측 해당란에 ✓체크해 주세요):		☐ 2013	☐ 2014 ☑처음참여

나의 5월 12일들

아무런 사건사고도 없었던 평범한 하루였다. '5분만 더...'를 외치다 늦게 일어나 헐레벌떡 집을 나선 후 만원버스에 내 몸을 꾸역꾸역 끼겨넣었다. 수업을 들으며 졸기도 하고 괜히 옆에있는 친구를 쿡쿡 찌르기도 하며 유난히 긴 50분을 버텼다. 점심을 빨리 먹기 위해 건물이 무너질 듯 질주하고 점심을 먹은 후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외치며 아이스크림 하나를 입에 물어넣기도 했다. 째깍째깍 수업이 끝난후 보충수업을 듣고 야자시간엔 밀린 숙제들과 수행평가를 해치웠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특별함은 없어보였다. 지루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나는 중학교 때를 종종 생각하며 그리워한다. 함께 싸우고 웃었던 친구들, 다른반이 청소를 끝내고 집을 가는 시간에도 끝나지 않았던 종례,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켰던 학원. 그때는 너무 지겨워 울기도 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떠 열심히 하지 못했던 순간순간들이 후회스럽기도 하고 지겨웠던 나날들이 너무나도 그리웠다. 또 특별했다. 지금이 지루한 일상도 언젠가는 그리움과 후회로 남겠지? 이렇게 생각하니 평범하다 생각했던 나의 5월 12일들이 너무 소중해졌다. 언젠가 특별한 때로 기억될 5월 12일들을 위해 지금은 지루하지만 마음을 다시잡고 열심히해야겠다.

용지가 부족할 경우 다음 장을 사용해 주세요

"5월 12일 일기 수집 이벤트"는 인간과기억아카이브와 영국 서섹스 대학교의 대중관찰아카이브 (MOA: Mass Observation Archives)가 공동 주최하는 역사프로젝트입니다. 기증하신 일기는 21세기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기록화하는 중요 자료로써 학술연구와 교육, 전시, 출판 등 문화 컨텐츠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귀하의 컨텐츠 공개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네, 동의 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문 학술연구진만 제 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http://omeka.hmarchives.org/